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 심사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사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 장소
 - (통합심사) 2025년 5월 21일(수) 13:30~16: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김은혜, 박준영, 배새암, 성종완, 최원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는 우수한 창작오페라 대본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동시대성과 예술적 다양성을 갖춘 극작가를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예술가가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창작오페라 분야는 통합심사로 총 26편의 작품이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사는 지원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로 극작, 연출, 작곡 분야의 전문가 5명이 먼저 개별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대본과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오페라 대본으로서의 적합성과 극적 완성도를 전수 검토 하였습니다. 그 후 2차로 전체 심사위원이 참석한 대면 심사를 통해 각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창작오페라 대본 심사는 작품성(80%)과 무대화 가능성(20%)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품성 평가에서는 주제 의식과 소재 선택의 참신성, 기존 작품들과 구별되는 독창적 요소의 유무와 함께 동시대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관객층과의 교감 가능성은 높은가, 그리고 대본과 음악 간의 조화로운 결합이 가능한가를 핵심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 무대화 가능성 평가에서는 실제 공연 환경에서의 구현 타당성과 과도한 각색 없이도 완성형 작품으로 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6편의 지원작 중에서 5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 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방향성을 지니면서도 공통적으로 신선한 발상과 동시대적인 시선을 기반으로 오페라 대본으로서의 가능성과 완성도를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관객을 아우를 수 있는 상상력과 주제 의식이 돋보였으며 역사적 사실과 창작적 상상을 적절히 결합하거나 고전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극적인 몰입감을 끌어낸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또한, 서사 구조의 안정성과 무대화 가능성을 고려한 구성력, 음악적 전개를 염두에 둔 장면 전환과 인물 설정 등 오페라 형식에 대한 이해와 감각도 두드러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각각의 작품이 지닌 고유의 메시지와 정서가 음악과 어우러질 때 관객에게 어떠한 감동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력을 설득력 있게 펼쳐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지원작의 소재와 주제적 경향을 살펴보면,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보였고 AI, 인공지능, 미디어아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현대적 소재를 다룬 작품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 관계, 사랑과 이별, 꿈과 현실 등 보편적인 인간 감정을 다룬 작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가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오페라 소재를 탐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일부 작품에서 오페라 대본에 요구되는 형식적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극적 대화나 뮤지컬적 구성에 가까운 형식, 지나치게 많은 대사량, 오페라라는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텍스트 구성 등은 작가들이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작오페라는 순수예술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중적 접근이 어려운 분야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활발한 창작 환경 조성에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 정서가 담긴 품격 높은 한국 오페라 대본들이 계속해서 창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살롱 오페라 등 새로운 형식의 소규모 오페라로 공연화가 가능한 작품들이 더욱 다양하게 신청되어, 실제 제작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공연 무대에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창작오페라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는 창작오페라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창작오페라 분야 심사위원 일동